

# 전시 기획서

송민겸

# 1. 작품 컨셉

- 원래 70% 이상 술이 차면 잔의 술이 빠져나가버리는 ‘주월배’의 절제의 미학을 시각적으로 표현
  - 담을 수 없는 것을 담아내다 : 달과 윤슬을 잔에 담다.
- 윤슬 :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 (하단 사진 참고)
  - 주월배 : 다음 장 참고



## 2. 의도



낮에 뜨는 달처럼, 주월배

홈·리빙 | 사사름

지나침을 경계하는 전통 술잔 계영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주월배와 선유배입니다.



절제의 미학이 담긴 잔, 선유배와 선아반

홈·리빙 | 사사름

지나침을 경계하는 전통 술잔 계영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선유배와 선아반입니다.



계영배 : 과음을 경계하기 위하여, 술이 어느 한도에 차면 열려 난 구멍으로 새도록 만든 잔

70%이상 술이 차면 잔의 모든 술이 빠져나가는 기존의 계영배의 구조에서 벗어나



사사름의 선유배와 주월배 : 7할은 유지되는 새로운 술잔

주월배는 술이 7할이 넘게 채워지면 초과된 술만 빠져나가도록 제작하였습니다.

- ‘텀블벅’에서 ‘계영배’라는 전통 잔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펀딩한 경험이 있다.
- 내 이름을 걸고 세상에 처음으로 선보인 제품 디자인을 미디어 아트로도 색다르게 표현하고 싶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.
- 처음 선유배&주월배를 디자인 했을 때 ‘윤슬’ 디자인을 구상했지만,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포기했었다. 세상에 나오지 못한 디자인을 미디어 아트를 통해 리메이크 하고 싶었다.

### 3. 작품 제목

- (가제) 담을 수 없는 것을 담아내다 : 주월배
- (가제) 절제의 미학 : 주월배



## 4. 오브제

- 흰색 무광잔 (1개) + 흰색 유광잔 (미정)



# 5. 표현 및 설치방법 (DP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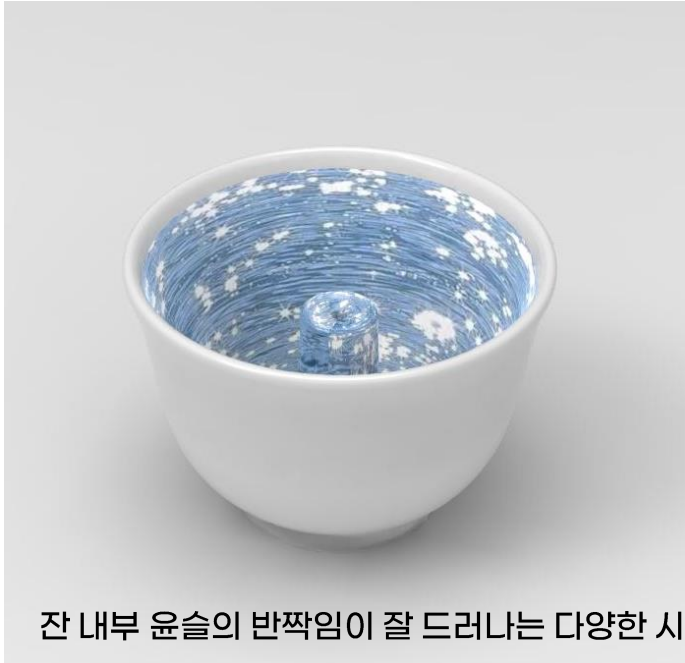
- 흰색 사각 단상 위에 잔 DP
- 잔과 단상의 정면과 top뷰에서 영상을 쏠 예정 (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정면만)
- 사각 단상 최소 2개 필요, 잔 최소 1개 필요
- 사각 단상 렌트 필요



전체적인 DP 예상 스케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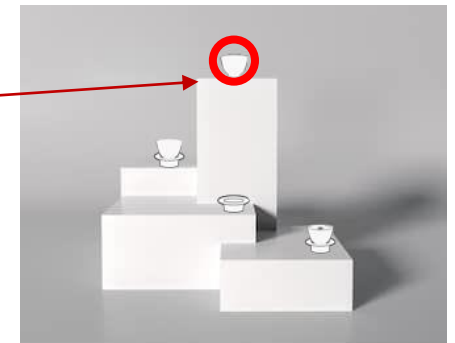


## 6. 컨셉이미지/레퍼런스



잔 내부 윤슬의 반짝임이 잘 드러나는 다양한 시간대의 윤슬 영상들을 빔 프로젝팅한다.

1. 어두운 상태에서 잔의 테두리가 따지는 빔 프로젝팅
2. 잔의 테두리가 다 따진 후, 단상의 테두리도 따진다.
3. 테두리들이 사라지고 가장 위에 DP 되어있는 잔에 물이 따라지는 것처럼,  
잔 내부에 점점 윤슬이 차오르다가 윤슬이 7할을 넘쳐 기둥의 구멍으로 빠져나간다.





## 6. 컨셉이미지/레퍼런스



4. 윤슬이 잔을 넘쳐 단상에 흐르면서 단상 위로 물의 파동이 생긴다.

5. 윤슬이 위의 단상에서부터 아래 단상으로까지 계속해서 흐르며 물의 파동이 계속 생긴다.



## 6. 컨셉이미지/레퍼런스



6. 잔과 단상에 달이 떠오르면서 반짝이들이 흩날린다.